

2020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도덕 · 윤리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2 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가), (나)는 현대 도덕 심리학자들의 주장이다.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가)	암묵적 지식을 고려한 도덕 판단력 검사지인 DIT (Defining Issues Test)는 도덕적 ()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합한 DIT 자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인지 발달론적 접근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을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의 심리적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도덕적 ()에 대한 접근이 신속하고 용이할수록 도덕적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거의 자동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본다면, 도덕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곧 도덕적 ()을/를 갖춘 ‘도덕적 전문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도덕적 ()에 대한 접근성이 자동화 수준으로 향상될수록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2. 다음은 메타 윤리학에 관한 글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지구는 자전한다.’라는 문장은 사실 판단을 나타낸다. 사실 판단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는 내용을 지닌 (㉠)을/를 나타낸다. ‘사람을 현혹하는 행위는 그르다.’라는 문장은 도덕 판단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도덕 판단이 나타내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은 크게 두 입장으로 나뉜다. 우선 도덕 판단이 나타내는 것과 사실 판단이 나타내는 것이 서로 같은 종류라는 입장에는 도덕 실재론, 오류 이론 등이 있다. 한편 (㉡) 입장에 따르면 도덕 판단이 나타내는 것은 (㉠)와/과 대조되는 승인, 비난 등의 정서나 감정의 상태이다. 이와 같은 (㉡) 입장에는 정서주의, 규정주의 등이 있다.

3. 다음은 한국 윤리 사상 고전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돈문(頓門)에도 근기(根機)가 뛰어난 사람과 근기가 열등한 사람이 있어서, 그 꾸러야 할 행장을 한 가지로 판단할 수 없다. 만약에 번뇌가 없고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하여, 선(善)을 대하되 선을 떠나고 악(惡)을 대하되 악을 떠나며, 여덟 가지 번뇌[八風]에도 동요하지 않고 세 가지 느낌[三受]에도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라면, ‘()정혜(定慧)’에 의지하여 닦아감에 자유로우니, 타고난 본성 그대로여서[天真] 어떠한 인위적인 조작도 필요 없다. 움직이거나 고요하거나 항상 선정(禪定)에 있으므로 자연 그대로의 이치를 성취하니, 어찌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방법을 빌리겠는가? 병이 없으면 약을 구할 필요가 없다.

한편 비록 먼저 단박에 깨쳤다 하더라도, 번뇌가 두텁고 습기(習氣)가 무거워서, 경계[境]를 대하면 생각마다 감정이 생겨나고, 연(緣)을 만나면 마음마다 대상을 만들어 혼침(昏沈)과 산란(散亂)에 빠져서, 고요하되 신령한 앎이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에 어두워진 사람은 ‘수상정혜(隨相定慧)’를 빌려서 다스려야 함을 잊지 말고, 혼침과 산란을 고루 다스려 무위(無爲)에 들어감이 마땅하다. 비록 대상에 따라 다스리는 공부를 빌려서 잠시 습기를 조절하지만, 이미 심성(心性)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본래 텅 비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점문(漸門)의 오염된 수행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4. 다음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통일교육지원법」의 내용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2점]

-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통일교육지원법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은 (㉠)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5. (가)는 도덕성 발달 이론가의 글이고, (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p>가역적인 도덕 판단에 이를 수 있는 과정을 ‘이상적인 (㉠)’(이)라고 부른다. 6단계의 도덕 판단은 모든 행위자들이 황금률에 따른다는 가정 아래 각 행위자의 주장을 (㉠) 하는 것에 기초를 둔다. 또한 ‘이상적인 (㉠)’은/는 인간 존중과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자세를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의사 결정 절차이기도 하다.</p>
(나)	<p>케이트의 부모는 백혈병에 걸린 케이트를 치료하기 위해 맞춤형 아기인 안나를 낳았다. 이로 인해 안나는 어릴 때부터 즐기세포, 골수 등을 케이트에게 주었고, 10대가 된 이후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지금 안나는 언니 케이트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더라도, 자신의 몸에 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할지 고민 중이다.</p>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이상적인 (㉠)’을/를 (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가)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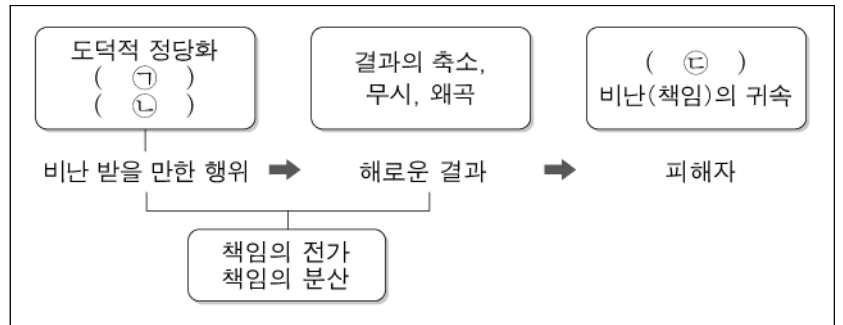
6. 다음은 현대 사회 사상가의 주장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정의의 여건이란 그 아래에서 인간의 협동 체제가 가능하고도 필요한 정상적인 조건들이다. 이에 대한 흄(D. Hume)의 설명은 아주 분명하다. 흄의 설명에 따라 나는 객관적 여건으로 (㉠)(이)라는 조건을 강조하고, 주관적 여건으로 (㉡)(이)라는 조건을 강조하고자 한다.
- 재산 소유 민주주의는 정의의 두 원칙에 담겨 있는 모든 주요한 정치적 가치를 실현한다. 나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복지국가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본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자본주의 둘 다 ㉢ 생산적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두 체제가 똑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재산 소유 민주주의에 비해 ㉣ 복지국가 자본주의는 중대한 한계점을 갖는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밑줄 친 ㉢을 활용하여 ㉣의 내용을 서술할 것.

7. 그림은 반두라(A. Bandura)의 ‘도덕적 이탈’ 기제를 나타낸 것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그 예를 1가지 제시할 것.

8. 다음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의 주장이다.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오. [4점]

만약 의지의 준칙들이 보편적 법칙 수립에 적합하다는 점 외의 다른 어디에서, 그러니까 만약 의지가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의 객관들 중 어느 하나의 성질에서 자기를 규정하는 법칙을 구한다면, 언제나 (㉠)이/가 나타난다.

자기 행복의 원리는 가장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까닭은 단지 이 원리가 거짓이고, 잘 처신하면 언제나 잘 지내게 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경험에 모순되기 때문은 아니다. 또한 어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과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서, 자기 행복의 원리가 도덕성의 기초를 놓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자기 행복의 원리가 (㉡)이다.

한편 보편적인 법칙만이 문제인 경우에서도 사유할 수 없는 사람들은 느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이 (㉢)을/를 도덕성의 원리로 끌어들이는 것은 천박한 일이다. 왜냐하면 무한히 서로 다른 감정을 선과 악이라는 동일한 잣대로 잴 수 없으므로,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타당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자기 행복의 원리보다는 (㉣)(이)라는 특별한 감각 능력이 도덕성과 그 존엄성에 더 다가서 있다. 왜냐하면 (㉣)은/는 덕에 대한 존중을 직접 덕에 돌려서 경의를 표하며, 또한 우리를 덕과 연결시키는 것이 덕이 가져다주는 이익일 뿐이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9. 다음은 서양 근대 윤리 사상가 갑과 도덕 교사 을의 가상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행복은 바람만하며, 그 자체로 바람만한 유일한 것입니다. 다른 바람만한 것은 모두 행복을 이루기 위해 바람만한 것이지요. 행복은 쾌락의 상태 또는 괴로움의 부재입니다. 쾌락의 상태 또는 괴로움의 부재만이 (㉠)을/를 지니며, 다른 것은 모두 (㉡)을/를 지니므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한에서만 바람만한 것이지요.

을: 선생님께서는 “㉢ 올바른 행동을 위해 따라야 할 유일한 원칙은 어떤 행동을 한 사람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그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 모두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어떤 행동이 일반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하고 고려할 시간이 없으니 행동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갑: 과거의 모든 시간 동안에 인류는 경험을 통해 쾌락의 질적 차이와 행위의 각종 경향성을 습득해 왔지요. 따라서 도덕의 근본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을/를.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명칭을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서술할 것.

10. 다음은 현대 사회 사상가의 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 공화국은 자유를 위해 시민적 (㉠),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을/를 지닌 시민은 시민적 우애를 중시하며, 시민적 (㉡)와/과 공화국에 대한 봉사가 사생활과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 (㉢) 사상가들에 따르면, 진정한 정치적 자유는 (㉣)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이 다른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종적 지배나 예속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 법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라도 남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쓸 것.
- 밑줄 친 ㉢에 대해 ㉡ 사상가들은 찬성하고 ㉣ 사상가들은 반대하는 이유를 각각 서술할 것.

11. 갑, 을은 동양 윤리 사상가들이다.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고, 밑줄 친 ㉡에 대한 갑, 을의 설명을 순서대로 서술하시오. [4점]

갑	사람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은/는 일찍이 밝게 빛나지 않은 적이 없다. 비록 그것이 아무리 어둡게 가려진다 해도 그 선단(善端)의 발현은 결코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일찍이 그침이 없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발현된다. 예를 들어 불의(不義)를 보면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고,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가엾게 여기고, 어진 이를 보면 삼가 받들며, 선한 일을 보면 감탄하며 배우고 싶어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의 발현이다. 따라서 ㉢(㉠)을/를 밝히는 것[明]은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냄[磨鏡]으로써 밝게 비추도록 하는 것에 비유된다.
을	격물(格物)의 격(格)은 맹자가 말한 ‘대인은 임금의 마음을 격(格)한다[바로 잡는다].’의 ‘격’과 그 뜻이 같다. 그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없애고 본체(本體)의 바름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다. 의념(意念)이 있는 곳이라면 그 바르지 못함을 없애서 그 바름을 온전하게 회복해야 한다.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천리(天理)를 보존하라는 말이며, 천리를 보존하는 일이란 바로 궁리(窮理)이다. 천리는 곧 (㉣)이므로, 궁리란 곧 『대학』의 ㉤(㉡)을/를 밝히는 것[明]이다.

12. 갑, 을은 한국 윤리 사상가들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갑	만약 (㉠)와/과 (㉡)을/를 대응시켜 각각 나누어서 말한다면, (㉢)와/과 기(氣)의 관계는 (㉣)와/과 이(理)의 관계와 같다. 그 발(發)함에는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는 각각 가리키는 바가 있다. 그러므로 주(主)로 하는 바에 따라 이와 기로 분류하여 소속시킬 수 있다.
을	사람의 성(性)에는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다섯 가지가 있을 뿐이니, 이 다섯 가지 외에는 다른 성이 없다. 정(情)에는 희노애구애오욕(喜怒哀懼愛惡欲) 일곱 가지가 있을 뿐이니, 이 일곱 가지 외에는 다른 정이 없다. (㉤)(이)란 선(善)한 정(情)의 별칭(別稱)에 불과하니, (㉥)을/를 언급하면 (㉦)은/는 이미 그 가운데 들어 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 ㉡에 해당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쓸 것.
- 괄호 안의 ㉢, ㉣의 발현에 대한 갑, 을의 주장을 이(理)와 기(氣)를 모두 활용하여 순서대로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